

제공일자	2014. 9. 6(목)	담당자	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13	총2매

제목: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건강 및 소득보장 분야의 공·사간 협력 절실

-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9월 11일(목) 국회의원 회관 제 2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(공동대표 : 김무성 의원, 원혜영 의원, 심상정 의원, 주관 : (재)한국미래연구원)에서 “고령화시대,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·사 파트너십 구축”을 주제로 발표함.
 - 이번 포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공·사협력 방안을 모색함.
 -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복지 환경을 감안하여 공적 안전망 중심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 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.

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건강 및 소득보장 분야의 공·사간 협력 절실

- (건강보장분야)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지출측면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관리강화가 절실히 요구됨.
 - 급여의료비는 의료수가 통제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급여의료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총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함.
- 따라서 먼저 비급여 의료행위를 체계화하는 비급여코드 표준화와 비급여 의료비 청구를 급여의료비처럼 심사평가원을 경유하여 이루어지

는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가 관리되어야 함.

- 더불어 의료비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필요함.

□ (소득보장분야) 공·사적연금을 포함한 총소득대체율이 OECD국가의 평균은 70%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0% 수준에 불과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가 중요함.

-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높여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후소득이 불안정하여 중위소득층 이하가 빈곤화될 우려가 있는 점임.

□ 먼저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.

- 이를 위해 사업주의 자금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가입의 의무화 추진이 이루어지고 사적연금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중소득층이하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법적, 제도적으로 연금지급을 완전히 보장하는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□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가입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정책이 필요함.

- 중소기업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개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연금가입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<별첨> 정례세미나 안내 및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발표자료 각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